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상형토기·상형청자

심화연구자 강 석 영(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전공 교수)

CONTENTS

1장. 들어가는 글

- “담는 문화” 속의 상형 토기(象形土器)와 상형청자(象形靑磁)
- 영혼을 담는 상형토기(象形土器)와 상형청자(象形靑磁)

2장 토기의 발생과 상형 토기의 등장

1. 실용적 일상 용기로서의 신석기시대 토기- 최초의 그릇 제작
2. 주술적 실용적용도로서의 청동기 시대 토기(무문토기 시대)- 제기(祭器)의 등장
3. 철기문화의 시작 원삼국시대 - 오리형 상형토기(鴨形土器) 등장

3장 토기문화가 다양화된 삼국시대

- 흙을 구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지혜-주술적, 건축적, 용기적(容器的)

4장 신라, 가야토기의 발달과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

- 통일신라시대 토기- 토우의 간결화와 곱호의 등장

5장 상형토기의 조형적 의미와 다양성

1. 동물형토기 2. 가형토기 3. 차형토기
4. 배모양토기 5. 신발형토기 6. 인물형토기

6장 상형토기의 정신적 사상

7장 상형토기에서 상형청자로의 시대적 흐름과 발생

8장 상형청자(象形靑磁)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가치관

9장 상형청자의 조형적, 재료 문화적 특징

10장. 중국의 상형청자

11장. 맺음말

1. 상형토기, 상형청자의 조형적인 미와 정신적 사상
2. 상형토기, 상형청자의 고유한 조형요소가 현대적 조형요소로의 반영

1장. "담는 문화" 속의 상형 토기(象形土器). 상형청자(象形靑磁)

영혼을 담는 상형 토기(象形土器)와 상형청자(象形靑磁)

인류의 구석기 시대 불의 발견은 신석기시대의 토기 제작으로 이어졌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원시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흙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토기는 인류의 정착생활과 농경생활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 식량의 획득과 저장이라는 생계방식은 용기의 제작을 가능케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식생활 문화와 생산 활동에서 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용기는 사회 문화적 발전과 함께 기능과 용도가 확대되었고 식량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일상용기로서의 쓰임은 물론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신분이나 부의 상징으로, 제사와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부장용 등의 의식용(儀式用)도구로도 널리 쓰여 졌다. 삼국시대 특히 가야와 신라에서 부장용 혹은 의식용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象形土器)가 제작되었고 각 지역과 시대마다 상형의 형태나 표현기법 그리고 용도 및 기능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 신라시대의 상형토기는 중국의 한(漢), 육조(六朝)의 영향을 받았고 낙동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등의 상형토기들과 비교해 볼 때 고 신라시대 상형토기는 장식을 많이 하여 그 형태가 다양하고 고분 출토품이 대부분이므로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부장용 등의 의식용(儀式用)도구 혹은 제사용기였을 것이다. 동물이나 인간 혹은 차륜(車輪), 집, 배, 신발 등의 형태들을 표현했으며

사진1 오리형토기(鴨形土器),가야5-6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소장



사진2 오리형 토기(鴨形土器) 신라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3 청자압형수적 (靑磁鴨形水滴) 고려12세기, 간송미술관 소장



사진4
조롱박모양주전자(瓢形注子),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비록 세련되지 않은 원시적인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나 고대인의 소박한 정서와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원삼국 시대를 시작하여 삼국시대 특히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다양한 상형토기가 제작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상형토기들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상형토기는 고려시대로 오면서 자기질(磁器質)로 발전하게 되며 조형적으로 보다 완성되어진 형태로서 고려시대의 상형청자를 형성하게 된다. 고려의 상형청자에 와서는 신라 상형토기가 지녔던 고분문화적인 특징은 바뀌게 되지만 형태에 있어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어 신라시대의 오리형 토기(鴨形土器)〈사진1,2〉 같은 형태들은 청자의 오리형 연적〈사진3〉과 그 형태가 유사하고 고려시대 토기 조롱박모양 주전자 형태〈사진4〉는 고려 시대의 청자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사진5〉와 모양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청자는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장식되지만 토기로 만든 주전자는 무늬가 없는 대신 우아한 곡선미를 잘 살려 내었고 주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상형청자 역시 향로 등과 같이 의례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례용, 부장용으로 많이 제작되어온 상형토기와 상형청자는 연관성을 보이지만 상형청자는 상형토기와 달리 문방구 및 일상용품으로도 제작된 예가 있어 이러한 용도상으로는 상형토기와 상형청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와



사진5 청자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 고려12세기
국보133호, 리움미술관소장

고려 상형청자는 용도는 다르지만 고려시대 이전에 흙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상형물(象形物)을 제작했다는 것은 상형토기가 고려 상형청자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삼국시대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를 바탕으로 한 고려초기의 상형청자는 12세기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우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형청자로 제작된다. 이러한 상형청자의 조형미(造形美)는 귀족적인 성격이 짙고 고려시대 상류사회의 생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토기에서 청자, 분청자, 백자로 이어지는 담는 문화의 변천과 발전 속에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와 고려의 상형청자가 제작되었고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고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의식이 반영된 역사적 산물로 존재했던 것이다.

2장. 토기의 발생과 상형 토기의 등장

실용적 일상 용기로서의 신석기시대 토기- 최초의 그릇 제작

신석기시대는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시점이며 집단정착생활, 농경과 목축의 생산경제, 잉여 산물의 저장을 위해 흙과 불을 이용한 용기의 제작, 노동의 분업화 등 인간의 사회 경제 활동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다. 특히 토기의 제작은 인간의 불의 발견 이후 흙이 불에 구워져 단단해지는 원리를 발견한 신석기인들의 생활 혁명이었다. 토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인간에 의해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역할을 하는 용기(容器)로서 쓰여 져고 생

활에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는 “담는 문화”의 시작이 된다. 현재 가장 오래된 토기로 알려진 것은 BC 10000년에서 7000년경에 해당하는 북제주군 고산리 선사시대 유적¹⁾에서 1988년도에 출토된 토기 용기문 발(土器 隆起文 鉢)〈사진6〉이다. 이 덧무늬(용기문)토기는 평저에 구연부(口緣部)가 크게 바라진 발(鉢)의 형태로써 그릇의 표면을 약간 돌어나오게 띠 모양의 흙을 덧붙인 덧띠

1) 고산리 유적은 기원전 1만년을 전후한 시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 남북 1.2km, 동서 300m의 규모로 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서기 1988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강창화에 의해 용기문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현재 국가사적 제412호로 지정돼 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은 1994년 고산리 해안단구 속칭 한장발 일대에서 용기문토기 1개체 분을 비롯하여 원시무문토기 파편 50여점, 돌화살촉(Arrow) 206점, 돌날(Blade) 22점, 돌송곳 19점, 흙날석기(Notch), 끝금개(end-scraper), 세형돌날(micro-blade), 첨두기(尖頭器point) 박편 6114점 등 6500여점의 신석기초기시대 유물을 발굴하였다.



사진6 제주 고산리 출토 토기 용기문 발(土器 隆起文 鉢) 신석기시대 BC10000년~7000년경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사진7 부산 영도구 영선동 패총출토 토기용기문 발(土器 隆起文 鉢) 신석기시대

문 형식의 독특한 용기문토기(隆起文土器)이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 질로서 소성방법은 노천에서 저온으로 소성되어 적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고 있고, 점토를 둥그랗게 만들어 원추형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태쌓기식 방법 (ring building method)으로 만들어 졌다. 빗살무늬토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이며 맨 위 첫줄은 수평을 이루지만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일정한 간격으로 각각 S자형과 포물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장식은 그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물결을 형상화 한 듯하며 신석기시대 제주인들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고산리 토기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 패총 출토 토기 용기문 발(土器 隆起文 鉢)²⁾〈사진7〉은 기원전 4000년경에 신석기시대 전기에 쓰여졌던 것으로 완형(完形)으로 출토되었다. 몸통이 둥근 공을 반으로 자른 듯 하며 바닥이 둥근 반구형(半球形)의 바리때 모양 토기로써 다른 유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형(器形)이다. 특히 구연 부의 한쪽에 짧은 주구(注口)가 위로 비스듬히 부착되어 있어 액체를 담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귀때그릇이다. 액체를 따르기 위한 귀때가 달린 신석기시대 토기는 아주 드문 편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 신석기문화의 발달된 생활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이다. 그릇의 윗부분에는 돌아가면서 점토대(粘土帶)를 W자형으로 붙인 뒤 아래위를 조개껍질 같은 도구로 촘촘히 눌러 고정시켜 눈금이 새겨진 것 같은 장식을 하였다. 점토 띠를 그릇에 눌러 붙인 자국이지만 정연한 무늬를 이루어 장식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천에서 낮은 온도로 소성했기 때문에 연질이며 태토는 적갈색을 띠며 저부(底部)의 바닥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을 띤다.

기원전 4000년경 동아시아에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 할 수 있는 빗살

2)1930년에 발굴되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에 동아대학교 허문택교수에게 발견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남게 되었다.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유물이고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초기 신석기 토기이다.



사진8
빗살무늬 토기(줄문토기) 김천 송죽리 출토
높이 36.0cm



사진9
빗살무늬 토기(줄문토기) 서울시 암사동 출토
높이 40.5cm

무늬 토기(줄문토기)〈사진8〉로 밑이 둥근 포탄형이다. 이 당시의 주거지는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등 강변이나 해안의 약간 경사진 모래사장이었고 이들 주거지에서 주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용기문 토기가 일부 지역에 서만 출토되는 것에 비해 빗살무늬 토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는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제작한 후 노천에서 구운 것이다 형태가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어 V자 혹은 U자형의 기형을 취하며 이러한 형태의 발은 초기에는 바닷가 모래밭에 박아서 음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고 이후에는 주거지에 땅을 파서 세워 놓고 식량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크기는 쓰임새에 대. 중. 소로 만들어 사용되었는데 큰 것은 50cm, 중간 크기는 30cm, 작은 것은 20cm 정도이다. 큰 것은 저장용으로 작은 것은 음식의 조리용 식기로 사용했고 크기에 따라 주식과 부식으로 나누어 사용했을 것이다. 제작방법은 감아올리기 방법(coiling method)과 반지와 같이 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 원추형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태쌓기식 방법(ring building method)이 흔히 사용되었다. 대체로 빗살무늬는 생선의 등뼈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그릇 표면에 빗금을 그어 빗살무늬를 나타내었는데 지역과 시대에 따라 문양대가 조금씩 다르다.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문되어진 문양 중 평행사선이나 지그재그선은 무늬의 공통적인 형상으로서 기하학적 문양을 구연부분, 배부분, 밑부분의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시문하였는데 윗부분에는 점선으로 단선무늬가 3줄 혹은 4줄 시문되고 배 부분에는 바다의 파도를 연상케 하는 지그재그 빗살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물의 표현은 원시미술에서 빗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어로를 기본적인 생업으로 삼고 살던 신석기인들의 물에 대한 생각을 빗살무늬로 장식했을 것이다. 토기의 문양이 변화하는 신석기인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

에서 감정의 이입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탄형의 조형성과 기하학적인 문양은 그 당시 사람들의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능력이 반영된 것이다

실용적, 주술적 용도로서의 청동기 시대 토기 -제기 등장 (무문토기 시대)



사진10 민무늬토기, 기원전15-5세기, 청동기시대



사진11 송국리형 무문토기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1000년경 만주와 몽고지방으로부터 통구스라는 새로운 종족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역사기록에 예맥으로 나타나 있는 이들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던 선주민을 정복하고 흡수하여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다. 고조선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근까지이며,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유물로는 민무늬토기, 비파형동검 그리고 고인돌을 들 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청동검인 세형동검과 청동거울인 잔무늬거울 등의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농경민으로써 내륙지방에 정착함으로써 생활농경과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제작되는 토기는 겉면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가 등장하는데 굽은 모래나 돌가루를 섞은 다소 거친 진흙으로 빚어 구웠으며 바닥이 납작하고 적갈색을 띤다.〈사진 10〉 그리고 생산력의 증가, 사회 내부에 신분적 차이, 정치적 권력의 등장으로 사유재산이 생겨났고 청동 무기 사용으로 지배관계와 피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용기의 제작 동기도 단순히 음식의 저장 및 조리 용도를 넘어 기능이 확장되어 다양한 종류의 무문(無文)토기를 제작하였다. 특히 제사나 무덤장식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특수한 목적의 용기나 부장용기들이 함께 제작되었다. 이렇듯 장식적인 문양은 사라졌으나 형태와 기종이 매우 다양해진 것은 안정된 정착생활로 생활용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된 것으로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홍도³⁾〈사진12〉나 흑도⁴⁾〈사진13〉, 채도는 청동기시대의 표적인 토기이다. 소성방법에 있어 구덩이를 약간 파고 그릇과 나무를 지그재그로 켜 후 불을 때면 열을 평지의 노천보다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수혈요 구조로 그릇을 구워 밀폐된 공간에서 환원작용이 이루어져 흑색토기가 제작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의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었던 생활 용기와 달리 부장 용기나 특수 용기의 경우는 깨끗하고 고운 점토를 이용하였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제사 의식과 함께 죽은 이에 대한 배려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12 붉은간토기(적색마연토기 赤色磨研土器)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13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 붉은간토기(적색마연토기 赤色磨研土器)는 겉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광택을 낸 토기이다. 고운 바탕흙을 사용하여 만든 후 표면에 산화철(酸化鐵:丹)을 바르고 잘 문질러 구웠기 때문에 붉은 광택이 돈다. 청동기시대 붉은간토기는 바리, 대접,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바닥이 둥근 항아리 형태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고인돌·돌널무덤·집터 등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붉은간토기는 집터뿐 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아 의례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형은 둥근 바닥의 긴 목단지이며 목이 안으로 가볍게 오므라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유적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이다. 검은간토기는 보통 긴 목을 지닌 단지의 형태로 표면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잘 문질러 구웠기 때문에 검은 광택이 돈다.

검은간토기와 자른 면이 원형인 덧띠토기(粘土帶土器)는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이들은 중국 요령지방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다른 문화요소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의 간토기는 청동기시대 만들어진 토기중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토기로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특히 백제 토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도(黑陶)·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라고도 한다.

철기문화의 시작 원삼국시대⁵⁾

- 오리형 상형토기 등장 / 부장용 와질토기와 일상용 경질토기제작

철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점토를 정제하고, 물레를 사용하여 원심력으로 기형을 바르게 만들었다. 기원전 300년경으로부터 기원후 300년경까지 청동기의 제작은 사라지고 철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작은 국가들이 생겨났으며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인구 증가와 사회의 계급 분화양상은 토기 제작에서도 변화를 가져 왔다. 중국 한(漢)나라의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이 받아들여져 성형 기법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타날법(打捺)과 같은 방법이 응용되면서 대형 용기의 제작도 가능해져 보다 단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질 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가 만들어진다. 즉, 지하굴식 가마에서 1000℃ 이상의 고온의 경질토기와 저온의 연질토기(軟質土器)를 용도와 의도대로 온도조절을 하면서 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사용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토기는 생활에 주로 쓰여 졌던 경질토기류와 부장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질 계통의 와질토기가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와질토기는 원삼국시대 토기 중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조형적으로 세련된 것이었다. 와질토기는 색깔이 회색이나 회흑색이고 기와의 질감과 비슷하여 불려진 이름으로, 바탕흙이 곱게 정선되어 질감이 부드럽고, 표면에 타날무늬(두들긴무늬, 打捺文)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14, 15> 대부분이 무덤의 부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써, 장식성은 강하나 연질이므로 약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산소의 공급이 차단된 환원염(還元焰) 상태의 제작환경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소성온도를 고온으로 올릴 수 있어 토기제작의 일대 혁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다양성은 삼국시대의 토기 형성에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다.



사진14 굽다리항아리, 원삼국시대 2-3세기



사진15 원삼국시대 와질토기

5) 기원전 1세기부터 삼국이 본격적인 고대국가체제를 완성하기 전인 3세기까지를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고 하는데, 문헌상으로는 삼한시대(三韓時代)에 해당되며, 삼국이 국가체제를 갖추어나가던 때이다.

원삼국 시대의 오리모양 상형토기



사진16 울산 중산리의 덧널무덤출토
오리모양(鴨形土器) 토기 원삼국3세기
창원대학교박물관 소장

원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의식용으로 상형토기가 등장한다. 물론 훨씬 이전에 신석기시대에도 동물을 본떠 만든 작은 흙 인형이나 토면, 뿔잔과 유사한 것이 확인된 바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형상을 구체화한 것은 원삼국시대 오리모양(鴨形土器) 토기이다.

〈사진16〉상형토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울산 중산리의 덧널무덤에서 출토된 오리를 부장된 것으로 추정되

는 것으로 고대사회에서 새에 대한 신앙과 결합되어진 것을 알려 주고 있으며, 실생활용기가 아닌 부장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죽은 이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하는 새 또는 오리를 본떠 만든 와질토기로, 의식용이나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토기를 만드는 이유는 토기에 새뻘나 새깃을 모지에 부장품으로 넣으면 영혼이 승천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구실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속이 빈 몸통은 술 등 액체를 담을 수 있고 등과 꼬리부분에는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삼국지위서동이전(三國志魏書東夷傳)'에는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장례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이 있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유적에서 오리모양 토기 외에도 새 모양 목기, 새 무늬 청동기 등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사진17 닭모양 토기(鷄形土器) 원삼국3세기
호림박물관 소장



사진18 오리형토기 원삼국시대 경주교동
출토 높이 34.4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출토되어 새와 관련된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리모양 토기는 다른 형태의 상형토기와 함께 삼국시대에도 계속 만들어졌고 형태가 간단했던 원삼국시대의 것에 비해 날개 벼슬 등의 세심한 표현과 더불어 영락까지 매다는 장식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이렇듯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지역에서 사람이나 동·식물 그리고 기타 다양해진 형태로 제작되었다. 원삼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상형토기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며 이후 고려시대로 이어진 것이다.

3장. 토기문화가 다양화된 삼국시대

－ 흙을 구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지혜

주술적: 다양한 형태의 의식용 상형토기 제작

건축적: 기와, 벽돌, 화덕의 사용

실용적: 다양한 형태의 그릇 제작

고대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 3세기 늦은 단계부터 신라에 의해 통일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삼국 시대의 토기에는 고구려 토기, 백제 토기, 신라 토기, 가야 토기 등이 있고, 실용적인 기능, 건축적인 기능, 주술적인 기능으로서 토기의 문화가 다양화된 양상을 보인다. 주술적 기능으로써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다양



사진19 수막새. 백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하고 많은 양의 상형토기가 의례용, 부장용으로 제작되었고 건축적인 양상으로는 삼국모두 기와, 전돌, 등의 건축 자재로서의 토제제품도 널리 사용되었다. 흙을 구워서 돌처럼 사용하던 지혜는 일찍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여 AD 1세기경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3, 4세기 기와의 여러 종류와 망새 등 지붕을 장식하기 위한 점토 입체 구조물들도 상당한 발달을 했다. 벽돌을 구워 벽체를 견고하게 하는 기능적인 면과 장식을 넣어 미적 조형물로서 심미적인 기능까지도 고려하였다. 흙을 구워 제작한 건축자재는 삼국 시대 이래로 더욱 발달되면서 가옥의 외각을 구성하는 담장에도 문양을 장식

하여 외관을 꾸몄다. 이와 같이 흙으로 제작된 건축자재는 오늘날 현대 건축물의 내외부의 벽면 및 공간의 장식으로서도 종종 응용된다. 즉 지금의 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옥의 바닥장식에서부터 무덤장식용 벽돌, 지붕을 장식하는 기와, 용마루에 이르기 까지 삼국시대부터 흙을 이용한 건축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벽돌의 기원이 되었다. 기와의 경우 고구려, 백제의 형태와 문양의 양식은 각각 차이를 보이며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시대성을 갖는다. 전돌 역시 이 시대에 많이 만들어 졌는데 관계토왕 석총(石塚)등 삼국시대 초기에 건립된 건축물에 명문이 있는 전돌들이 제작되었다. 고구려 벽돌 중 태왕릉과 천추총에서 출토된 글자가 새겨진 벽돌(銘文塼)이 있는데 벽돌의 옆면을 구획한 후, 그 안에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겼다.〈사진20〉 글자는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 ‘(보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 등 무덤이 오래도록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글자(吉祥句)들이며 무덤 위에 세운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벽돌은 삼국시대 중기에 이르러 무늬와 조각이 매우 다양화되었고 그 중 백제의 무녕왕릉〈사진22〉의 경우 묘전의 표면 또는 측면을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이처럼 블록형의 전돌을 만들어 그 표면에 무늬를 장식한 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쌓기도 하여 벽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구성하였다.⁶⁾〈사진21〉



사진20 글자가 새겨진 벽돌(銘文塼) 고구려



사진21 산수봉황무늬벽돌(山景鳳凰文塼) 백제

삼국시대 토기의 양상 중 실용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형의 토기가 제작되었고 특히, 고구려토기는 지리상 북방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창조력과 강인한

6) 산수봉황무늬벽돌(山景鳳凰文塼)

건물이나 회랑의 바닥에 깔았던 것이다. 아래쪽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뒤쪽으로 세 개의 봉우리(三山)가 연속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좌우로 기암절벽이 있다. 가운데의 산봉우리 위에는 큰 봉황이 비상하려는 듯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상서로운 구름들이 떠돌고 있다.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三神山), 봉황, 상서로운 구름 등에서 백제인의 도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충청남도 부여 외리에서 출토되었다.

요소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제작한 상형 토기로서 네모진 지상식 건물에 지붕이 올려진 형태가 있다.〈사진23〉 무덤에 넣기 위해 만들어진 명기(明器)로 추정되고 이 상형토기는 지붕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골을 파서 기와를 얹은 형상을 하고 있어 고구려의 가옥 구조를 알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사진24〉에 나타난 부엌을 보면 고구려인의 온돌과 화덕의 사용을 알 수 있다. 초기 철기 시대부터 한반도 남부에는 온돌이 보급되었는데 온돌은 난방과 취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설이다. 부뚜막에는 물을 끓이는 토기솥과 그 위에 올려 음식을 찌는 시루가 주로 쓰였다. 화덕은 온돌에 고정된 부뚜막과 다르게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닐 수 있는 취사도구다.〈사진25〉 시루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오늘날과 달리 끓이지 않고 주로 찌서 음식을 만들었음을 알려준다. 무덤에 묻은 화덕과 시루는 내세에서도 현세와 같이 생활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사진22 백제의 무녕왕릉



사진23 집모양토기 고구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24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부엌 (안악 3호분)



사진25 화덕과 시루
포항 냉수리, 경주 인왕동

백제토기는 원삼국시대의 회청색 경질 토기의 전통적인 제작 방법을 바탕으로 새로 북방의 낙랑과 고구려에서 토기제작 기술을 받아 들였으며 금강 이남지역에서는 가야 토기의 영향도 보인다. 백제 상형토기 중 토기와질호자(瓦質 虎子)〈사진26〉은 남자용 便器로서 회색을 주로 띠며, 호랑이 형상으로써 뒷받



사진26 토기와질호자(瓦質 虎子) 백제시대 국립부여박물관소장



사진27 독부덤 출토상태 경주 인왕동
사진27 독무덤과 꺼문거리(부장웅) 경주 인왕동 5-6세기



약간 굽혀서 앞발에 힘을 모으고 상체를 들어 左側으로 힘입게 머리를 돌린 후,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다. 몸체는 통통하고 발은 발톱을 감춘 듯이 오므렸으며, 입은 몸에 비해 크게 만들었는데, 얼굴에는 눈, 코와 수염을 표시하였는데 눈동자는 점을 찍어 조그맣게 표현하였으며, 낮은 콧등 끝에 두 점을 찍어 콧구멍을 표현한 후, 코 아래와 눈두덩 밑에 음각선으로 꼬부라진 눈썹과 수염을 나타내었다. 등에는 긴 파수(把手)를 부착하여 실용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일상문화 중 매장 역시 토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예로 독무덤을 들 수 있다. 독무덤은 주로 소형으로 돌무지덧날무덤이나 돌덧날무덤 등에 딸린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돌방무덤 내부에 매납된 경우도 있다. 소형이기 때문에 유.소아용 이거나, 뼈만 추려서 매장하는 2차장을 위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독무덤은 두 개의 독을 연결하는 것과 하나의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삼국시대에 흙을 구워 사용한 문화는 다양한 용도로 나타났으며 선인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4장. 신라.가야토기의 발달과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

신라토기의 발달과 상형토기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 동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신라 토기들은 돌이

섞이지 않은 정선된 태토를 써서 섭씨 1000도 이상의 등요에서 환원염으로 소성한 것이다. 표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양을 새기거나 장신구를 덧붙이고 뚜껑을 사용한 예가 많이 있고 부장용으로 여겨지는 기마인물, 배, 수레, 서수와 같은 모양을 표현한 상형 토기의 제작은 신라 토기의 큰 특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토기에 부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형 토우들인데 이들은 주술, 생식, 변영, 희생과 같은 신라인의 의식과 생활 이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신라토기는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은 신라 토기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용 보다는 무덤의 부장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8 토기영락장식 투각고배(土器瓊瑤裝飾透刻高杯)고신라5-6세기경주황오동고분출토, 이대박물관 소장



사진29 토우장식 고배(土偶裝飾高杯), 고신라 5-6세기 이대박물관 소장

가야의 토기와 제작기술의 발달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던 가야 지역에 서는 발달된 철기 문화와 함께 각종 패총과 고분에서 토기들이 출토되는데 이는 가야의 토기들은 신라의 토기와 같이 생활 용기들보다 제사나 의식, 무덤에 넣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야토기의 기형으로 고배와 더불어 둥근 밑바닥을 가진 항아리, 그릇 받침으로 사용

된 기대 등이 있다.〈사진31〉가야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상형토기의 제작이 활발했으며 신발, 수레바퀴, 말, 짐, 오리, 기마인물과 같은 특정한 형태로 빚은 상형토기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가야 토기의 특징이다. 이



사진30 사슴장식항아리 가야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렇듯 신라와 가야의 토기는 원삼국시대의 토기 제작기술에서 새로운 제작기법이 추가되었고 특히 상형토기와 같이 공동화된 조형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가야토기는 고구려 및 백제토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원삼국시대의 토기와 비교했을 때 신라, 가야 토기는 소성방법이나 제작에 있어 매우 발전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물레 사용이 본격적이었고 터널식의 등요로 고온 소성하여 경질토기가 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그 당시 토기제작이 전문화되고 집단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사진31 장경호,그릇받침(器臺)
가야시대

5장. 상형토기의 조형적 의미와 다양성

동작을 나타내는 사람형태나 동물, 식물 물체를 본떠 만든 상형토기의 형태들은 동물형으로 새나 말이 주류를 이루며 마형토기 각배, 기마인물형토기, 오리형토기 등이 있고 식물로는 참외나 표주박이 많고, 이 밖에 집모양토기, 차형토기, 배모양토기·수레·배·뿔잔·등잔·신발 등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체들이 많다. 이러한 상형토기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지거나 혹은 생략·과장·추상을 통하여 특징만



사진32 오리형토기(鴨形土器) 가야
5-6세기 이대박물관소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방법에서 신라, 가야인의 예술적 조형감각을 엿 볼 수 있다. <사진32>의 오리형토기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머리에서 꼬리에 이르기까지 신체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처리되었으며 몇 줄의 선으로 표현된 날개, 간단한 선과 점으로 구성된 머리를 보면, 생략과 단순화를 통해 새의 모습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동물형토기

1) 말(馬)모양



사진33 말탄무사모양뿔잔
신라5-6세기 국보275호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상형토기 중에서도 말(馬)모양의 토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 졌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말은 고대 기마민족 사이에서 존중되었었고 특히 환송, 제사 등의 행사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말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형토기들은 마차(馬車)와 함께 주인의 무덤으로 이장된 말 대신에 부장용으로 쓰인 명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마형토기(馬形土器)는 모두 부장용으로서 사용되었으며 제기로서 해석할 수 있다. 마형토기는 각종의 마구류(馬具類)가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고분시대의 기마풍류(騎馬風流)의 문제는 물론 한국 민족의 선조들이 북방계

기마민족이며 기마생활을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형토기로 대표적인 것은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두 점이다. 〈사진 34,35,36〉 말을 탄 인물은 넓은 밑받침에 서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속이 비어 있고, 컵모양의 수구(受口)가 있는 동물형 토기이다. 말의 궁둥이 위에 안으로 구멍이 뚫린 수구의 가장자리에는 뾰족하게 솟은 장식이 붙어 있고, 가슴에 긴 귀땀(注口)이 있다. 수구로 물을 부으면 귀땀로 물이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인물들은 차림새나 크기 등에 차이가 있어 신분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차림새가 호화스럽고 크기가 큰 인물이 주인이고, 차림새가 약간 엉성하고 크기가 작은 인물은 수행원으로 여겨진다. 주인상을 보면 호화로운 관모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 말에는 말띠드리개(杏葉), 말



사진34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신라시대
국보91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35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주인 신라시대 국보91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36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하인
신라시대 국보91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떠꾸미개(雲珠), 말다래(障泥), 안장, 혁구(革具) 등의 말갖춤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말 이마에 코뿔소의 뿔과 같은 영수(纓穗)가 붙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식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그릇으로 생각된다. 주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얼굴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날카롭게 솟은 콧날과 움푹 패인 눈매가 다소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 이렇듯 각종 말갖춤과 인물의 복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였지만 말과 인물 자체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사실적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을 동시에 시도한 것으로 신라인의 예술적 표현 감성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2) 새 모양(鳥形)

동물형 토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새 모양(鳥形)이다. 새 모양 중에서 오리모양(鴨形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본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오리모양이 많은 이유는 오리라고 생각되는 새들을 낙동강 주변에서 길렀거나 서식하였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강변지역에 벼농사를 하던 초기 농경인들 에게는 들새보다는 생활에 가까운 물새를 더 신앙이나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물새가 아니더라도 새에 대한 신앙 또는 특수감정의 발진은 고금(古今)을 통한 범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⁷⁾ 가깝게 보이는 오리를 이용한 것은 물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으며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또는 제례의 목적인 水, 雨와도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듯 오리형토기는 제례 용구(祭禮用具)이거나 물과 관계있는 의식 용구(儀式用具)였을 것이다. 오리형토기는 대부분 공통된 형태로는 부리가 넓으며 대부분이 다리대신에 고배(高杯)에서 볼 수 있는 투창(透窓)을 가진 받침(臺脚)에 鴨鳥의 배부분을 떠 받고 있으며 등과 꼬리 부분에 구연이 열려 있어 용기적(容器的)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공통적인 양식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모양을 하여 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38>의 한 쌍의 오리모양 경질토기는 기표(器表)에 약간의 자연유가 씌워져 있다. 주둥이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소박한 형태를 하고 있고 네 개의 사각 투창(四角透窓)이 길게 뚫려진 침

7) 김원룡, 新羅鳥形土器小見, 고고미술 106, 107호 p6

(臺脚) 위에 오리가 서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등에는 원통형으로 솟아오른 구멍이 있어 오리의 몸체에 액체를 부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통의 아가리 끝은 톱날처럼 처리되고 있고 머리는 약간 숙이고 있으며 오리의 독특한 부리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눈과 콧구멍까지도 투박하지만 잘 나타나 있고 목에는 둥근 목걸이처럼 띠를 두르고 있다. 띠를 보면 이 토기는 집에서 기르던 오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날개를 따로 만들어 등에 붙였다. 꼬리는 살짝 치켜들었는데 끝이 잘려져 나갔으며 전체적으로 귀엽고 통통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물오리나 새는 악령을 방지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있어 왔다. 가야 지역에서는 신간(神竿)에 오리 모양의 목조(木鳥)를 매달아 신조(神鳥)로 신앙되기도 하였다.



사진 37 오리형토기 삼국시대
경북대학교박물관소장



사진 38 오리형 토기. 가야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 거북이모양

동물형토기로서 거북이형토기(龜形土器)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대인들은 거북을 숭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 제작에 있어서도 거북이 모양 계통의 의장토기(意匠土器)가 많이 있다. 토기에 사용된 거북신앙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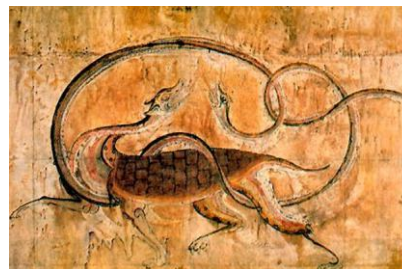


사진39 고구려 강서대묘 현무도

우리 신앙연구에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다. 거북은 내세(來世)에 완전한 재생을 비는 뜻을 포함한 수호신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거북신앙은 현무도(사진 39)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나 백제 고분벽화로 널리 알려진 현무도에서 거북의 물체에 뱀의 머리와 꼬리를 합친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방을 수호하는 신을 뜻한다. 이러한 거북이 모양 토기로서 경주시내 황남동(皇南洞) 고분군(古墳群) 내의 미추왕릉 출토 서수형토기(瑞獸形土器)(사진



사진40 서수모양주자, 신라6세기, 경주미추왕릉지구출토, 높이12.5cm, 국립경주박물관소장 보물636호

서수(瑞獸)'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다. 동근 그릇 받침 위에 거북의 모체(母體), 용의 머리와 꼬리 등이 복합된 상상의 동물이다. 몸체는 속이 빈 용기로 등에는 주입구(注入口)가 있고 가슴부분에는 위로 치솟은 긴 대롱모양의 출수구(出水口)가 있다. 몸체에는 영락(瓔珞)이 달려 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날카로운 이(齒)가 솟아 있다. 매우 특수한 형태의 상형토기로 주입구, 몸체, 출수구가 관통되어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의 역할도 가지고 있으며 무덤 부장용의 명기(明器)였을 것이다.

40>이다. 서수(瑞獸)'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다. 동근 그릇 받침 위에 거북의 모체(母體), 용의 머리와 꼬리 등이 복합된 상상의 동물이다. 몸체는 속이 빈 용기로 등에는 주입구(注入口)가 있고 가슴부분에는 위로 치솟은 긴 대롱모양의 출수구(出水口)가 있다. 몸체에는 영락(瓔珞)이 달려 있고 머리에서

4) 뿔 모양



사진41 뿔잔. 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42 말머리모양 각배 가야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소장

동물형 토기로서 뿔잔(角杯)〈사진41,42,43〉은 짐승의 뿔 모양과 흡사하게 만들어 졌다. 잔은 처음에는 실제 뿔을 이용하여 음료를 마시던 것에서 시작되어 금속이나 토기로 제작하게 되었다. 뿔잔만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받침과 함께 만들어지거나, 별도의 잔 받침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뿔잔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근동지역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용되었고, 노르웨이의 바이킹이 술잔으로 사용한 것은 삼국시대 뿔잔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시대인 동삼동패총에서 뿔 모양의 토기 잔이 출토

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청자로 조선시대에는 백자로 만들어진 각배가 있다. 따라서 뿔 모양의 잔은 특정 지역이나 시기에 한정되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국시대에는 경주, 김해, 등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토기로 만들어진 뿔잔이 많이 출토 되고 있다. 대부분 뿔잔의 구조는 <사진43>과 같이 굽다리위에 동물을 올리거나 <사진42>와 같이 동물의 등에 뿔잔을 붙힌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진43 뿔대지 위의 각배
가야시대 국립경주박물관소장

2. 가형토기(家形土器)



사진44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5세기
호림박물관소장

집모양토기는 가옥양식을 묘사하였으므로 그 시대의 가옥형태나 구조를 알 수 있고 주로 부장용으로써 죽은 이가 내세에서도 그와 같이 안락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복을 빌기 위해 무덤 속에 넣었다. 주로 가야지역의 낙동강 유역에서 출토되며 특히 가야지역의 가옥 형태 중 2층을 이룬 고상 가옥(高床家屋)을 본떠 만든 토기가 주류인데 고상 가옥은 강우량이 많고 습기가 많은 남방 아시아 지역의 가옥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옥 형태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가야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옥 형태를 취한 토기가 많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토기로 미루어 가야지역 당시 이러한 건축 양식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진44>의 가형토기는 아홉 개의 다리가 달린 고상가옥(高床家屋) 형태로서 가야토기의 형식이다. 전체적으로 옅은 회청색을 띠고 있고 집의 옆면에는 집시형의 주구(注口)가 붙어 있어 담아 따르는 용도로도 쓰였을 것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격자문(格子文)과 거치문(鋸齒文)으로 그리고 벽은 격자문으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가옥은 잉여생산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여겨지며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전통신앙과 저세상에서도 넉넉한 삶을 누리기를 염원한 마음이 담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45>의 집모양토기는 삼국시대에 일종의 곡물 창고(부경)인 다락방을 표현한 것으로 경남 창원 다호리 고분에서



사진 45 집모양토기(家形土器) 삼국시대
경남 창원 다호리 고분출토



사진46 집모양 토기(家形土器) 가야5-6세기
이화여대박물관소장

출토된 것이다.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작은 곡물창고가 있는데 이를 부경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부경은 고구려 무덤 벽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다락집으로 추정된다. 나무기둥을 세워 지면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 나무로 된 바닥과 벽체를 만들고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구조이다. 곡물창고인 다락방을 표현하고 곡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 정도라면 이미 주거를 위한 건축은 상당히 안정되고 발전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집모양토기가 많이 발굴되는 삼국시대부터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궁궐도 건축되고 불교의 전래로 대규모 사찰들이 창건되면서 우리의 목조건축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사진46〉집 모양 토기는 맞배지붕의 누상가옥 형태이면서 사각판상 위에 4개의 기둥 위에 지은 구조로 서까래까지도 표시하고 있어 당시의 가옥구조를 보여 준다. 지붕이 신부(身部)에 비해 처마가 넓고 처마 끝에는 돌기가 있어 목



사진47 집모양토기 신라4세기
높이20.3cm 경주사라리출토

조건물임을 알 수 있다. 돌기사이에 구멍이 뚫려 내부의 환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용마루는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형태이고 용마루 중앙과 신부(身部) 정면 상단에 조그마한 원통형 구멍이 뚫려있다. 〈사진47〉은 경주 사라리 유적에서 출토된 집모양토기로서 굽다리 위에 집이 얹어져 있다. 집은 맞배지붕으로, 골이 표현되지 않고 용마루가 없이 밋밋한 것으로 보아 초가집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쪽 지붕에 뚫려 있는 둥그런 구멍은 굴뚝으로 보이며 지붕 아래 들보기가 있는 점, 창문은 손잡이처럼 보여 지는 것이 달려있고, 굳게 닫혀 있는



사진48 집모양 토기 삼국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습 등은 그 당시의 가옥 구조를 알 수 있다. <사진48>의 토기는 대구 현풍에서 출토된 가형토기로서 외관은 일반적인 집의 모양과 비슷한데, 사다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지붕은 짚이나 풀을 엮고 끈으로 고정된 초가이며, 굴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무덤 속에 넣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살림집 형태로 보인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두 마리의 쥐가 지붕위에서 지켜보는 고양이와 보고 놀라는 모습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가야의 집모양토기 중에는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만든 다음, 벽과 지붕을 올린 다락집 형태도 있는데, 원두막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집은 삼국시대에 부경(杼京)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는 기록과 고구려고분의 벽화에 보이는 다락집을 감안하면, 주거용이 아니라 곡식 등을 저장하던 창고로 보인다. 이러한 집모양토기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죽어서도 살아서와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는 믿음을 담아 만들어진 토기이다. 이와 같은 집 모양 토기들은 당시의 집 모양과 구조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평소에 안식하던 집을 만들어서 죽은 뒤에도 현세처럼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한 집의 형태를 만들어서 무덤 속에 넣은 것이다.



사진49 집모양토기 삼국시대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50 집모양토기 가야시대 리움미술관소장

3. 차형토기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차형토기(車形土器)와 차륜식토기

(車輪飾土器)역시 고분에 부장된 명기(明器)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토기는 낙동강 유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나 차륜이 사용되기는 동양에서는 이미 중국의 은(殷) 주(周) 때부터 있었다. 차형토기는 형태상 단순화 경향보다는 오히려 입체공간의 복잡하게 표현됨으로서 용기로서의 기능 보다는 제기로서의 주술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인간세상의 수레이기보다는 천계(天界)의 수레일 것이다. 대부분 고분에 부장되어지는 겨문힌 명기(明器)로서 묻힌 사람의 영혼을



사진51 경주 계림로 25호 웅관묘에서 수레바퀴모양토기 출토



사진52 수레바퀴모양토기 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사후세계로 운반한다는 뜻이다. 신라의 것으로서 경주시 황남동(皇南洞) 미추왕릉지구 계림로25호분 독무덤-웅관(甕棺)〈사진51〉 안에서 소형토기들과 함께 출토된 것이 있는데, 〈사진52〉 앞이 트이고 뒤가 막힌 상자모양의 수레와 2개의 큰 바퀴로 구성된 것이다. 영남지방의 독무덤은 두 개의 독으로 입구를 맞닿게 한 형태로 크기가 작아 유아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수레토기는 무덤의 주인인 어린 아이를 위해 특별히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수레를 축소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살이 촘촘한 2개의 바퀴사이에 적재함(積載函)이 있고 적재함 가운데에는 소·말이 끌 수 있는 긴 이음대가 나온 모양이다. 〈사진59〉의 차륜식토기(車輪飾土器)는 수레바퀴가 붙은 굽다리 토기로서 토기의 받침은 이 시대 굽다리 접시인 고배(高杯)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밑이 벌어진 나팔모양 긴 직사각형의 굽구멍(투창(透窓))이 4개 뚫려 있다. 받침 위에 U자형의 뿔잔(각배角杯)을 얹어 놓고, 그 등에는 양쪽으로 고사리 모양 장식을 했으나 한쪽은 소실됐다. 고사리 모양의 장식은 가는 흙 줄을 양쪽으로 말아서 만든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U자형의 뿔잔은 술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보인다. 뿔잔의 좌우 측면에 수레바퀴를



사진53 수레바퀴장식 굽달린 잔 가야5세기



사진54 수레바퀴모양토기(車形土器)가야
5-6세기 이대박물관소장



사진55 수레바퀴모양토기
가야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부착시켰는데, 둥근 바퀴는 축을 중심으로 마름모꼴 모양의 창을 6개 뚫어 바퀴살을 표현하고 있다. 회흑색의 바탕흙은 쇠가 녹슨 듯한 색깔을 띠며,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가야 토기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54>의 수레바퀴모양 토기(車形土器)는 구멍이 뚫린 굽다리 위에 두 개의 컵모양 용기를 올린 후 양 옆에 두 개의 수레바퀴를 붙여놓은 형태이다. 컵모양 용기 상단에는 한 줄의 돈을 띠를 돌렸으며, 하단부에는 ∞자 모양의 띠가 두 용기를 서로 감고 있다. 수레바퀴는 고정되었으며,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사다리꼴 구멍이 서로 대칭되도록 뚫어 바퀴살을 표현하였다. 이들 차형토기 역시 제의용(祭儀用)을 사용되었다.

4. 배모양토기(舟形土器)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안을 통하여 반도를 이루고 있던 고대 삼국시대 중신라와 가야는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해상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유물이나 사서를 통해 볼 수 있다.⁸⁾ 이에 따른 조선술도 뛰어나 외국과의 긴밀한 교역으로 발전을 거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생활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해상 활동을 통해 볼 때 배모양토기(舟形土器)가 제작되는 배경이 되었다. 배 모양의 토기는 영혼을 저승으로 나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의식용 토기로 생각되며 그 당시 제작되었을 신라의 배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사진56>의 배모양 토기는 높은 받침대



사진 56 배모양토기 신라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8)이강철, 舟橋, 문화재 7호, 서울 문화재 관리국, p26



사진57 배모양토기 삼국5세기
호림박물관소장



사진58 평저주형토기(平底舟形土器) 가야5-6세기
리움미술관소장

위에 배 모양을 얹어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받침대는 신라 중기 후반 형식이며 배의 양쪽 끝부분에는 하트 모양의 달개가 달려 있다. 배 위에는 뱃사공이 앉아 노를 젓고 있으며 뱃사공은 모두 옷을 입지 않았고, 성기(性器)를 강조하고 있다. 성기를 강조하는 표현은 다산(多産)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는 신라 토우(土偶)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다. <사진57>의 배모양 토기는 단면이 삼각형에 가까운 배모양의 토기로, 항해용 배를 본떠 만들었다. 배의 머리와 꼬리는 물고기가 입을 벌린 형태인데, 배의 특별한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에는 다리가 달렸다. <사진64>의 평저주형토기(平底舟形土器)는 전체의 모양은 거의 좌우 대칭을 이루었고 양쪽 배 끝 부분은 길게 연장되다가 끝이 높게 들려서 반원형을 이루었다. 이 반원형 부분에는 구멍이 2개씩 있으며, 배 끝 부분에는 거의 다 부러졌지만 노를 걸었던 꼭지가 여러 개 달려있다. 배 안에는 좌우로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3곳에 칸막이가 있어서 사공이 이곳에 앉아 노를 젓게 되어 있다. 배좌우 바깥 측면에는 지그재그형으로 점선이 반복되어 전체에 새겨져 있다. 어두운 녹갈색의 자연 유약이 선체의 양면에 일부 씌워져 있다. 이들 배모양토기들은 주로 5~6세기경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발견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편히 옮겨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후세계관 및 고대 선박의 형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5. 신발형 토기

사진59 신발모양토기 가야시대
리움미술관소장



인간의 장신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신이다. <사진59>은 가죽신발을 모방해서 흙으로 만든 명기(明器)인데 신발의 코가 두툼하고 투박하게 솟아 있으며, 둘레에는 일

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일 수 있게 하였다. 양 옆의 구멍 주위에는 점열선문(點線文)이 장식되어 있다. 뒤꿈치는 가죽을 덧댄 형태로 약간 솟아있어 손으로 잡고 신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두 점은 전체형태에서는 비슷하나 구멍의 수나 시문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신발은 남방족 계통에서 발달된 것이지만, 북방계통의 목이 달린 화(靴)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시대의 당혜(唐鞋)나 근래의 꽃신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당시 실제로 사용한 신을 충실하게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금속제의 장식용 신발과 같은 성격을 띤 껌문거리(부장품) 토기이지만 형태는 전혀 다르다. 이 신발은 무녕왕릉에서 나온 금속제 신발과 달리,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신발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흙으로 만든 신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어서, 고대 껌문거리 양상을 밝혀준 점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사진60 짚신모양잔 신라5세기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사진 61 짚신모양잔 신라시대

6. 인물형 토기

토우

토우는 인물(人物), 동물(動物), 혹은 기물(器物) 등의 형태를 흙으로 빚고 소성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토우는 삼국시대(三國時代)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걸쳐 신라고분(新羅古墳)에서 출토된 예가 가장 많은 편이고 그 용도는 장송의례(葬送儀禮)의 일부로서 의도적으로 제작하여 토우 자체를 그대로 부장하거나 혹은 용기류를 장식하여 부장한 경우도 있다. 이 토우라는 말과는 별도로 토옹(土甕), 도옹(陶甕)이란 말도 자주 쓰이는데 토옹, 도옹이란 말은

작품 자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인데 반해 토우는 용기류의 장식용으로 부착하여 사용했다는 뜻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용기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가지면서 오리, 말, 기마인물(騎馬人物), 서수(瑞獸) 등의 인물, 동물 혹은 수레, 집, 신발, 배 등의 기물을 토기로 제작하여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흔히 이 경우는 상형토기(象形土器)라고 부르고 있어 토우와의 구분이 애매



사진 62-1, 사진62-2 토우장식항아리 신라5세기, 국보195호



사진63 토우 호림박물관소장



사진64 손을 앞으로 모은 인물토우. 신라

해지는 수도 있다. 토우, 토용은 고신라(古新羅) 혹은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분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신라시대부터 토기에 장식하기 위하여 제작된 장식용 토우가 먼저 발달하고 십이지(十二支)나 인물을 독립적으로 제작하여 매납하는 경우는 대체로 통일신라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전자가 토속적이고 신라 고유의 발달이라면 후자는 중국 도용(中國 陶甬)의 관습과 수법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다. 토우들은 독립된 작품들 보다는 굽다리접시(高杯) 뚜껑이나 목긴항아리(長頸壺)의 어깨에 붙이는 토기장식용(土器裝飾用) 토우들이 대부분이다. 인물과 동물을 토속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것이며 크기도 10cm를 넘는 것이 없고 대부분 2~4cm에 불과하지만 풍부한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신라·가야지역에서는 상형토기(象形土器)의 범주에 넣은 형태들은 대부분 내부가 비어 있고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용기류도 있지만 경주 금령총(金鈴塚) 출토 배모양토기나 계림로 고분군 출토 수레모양토기, 가야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집모양토기 등은 용기로서의 기능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부장용 토우의 발전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걸쳐 신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고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 중국식 도용의 영향이 농후해진다. 채회도용(彩繪陶甬)과 십이지상도용(十二支像陶甬)이 등장하는 것도 중국식 도용의 모방이지만 인물사의 복식(服飾)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보인다.



사진65 남자토우



사진66 여인상
신라7세기,
경주황성동출토



사진67 남자상
신라7세기



사진68 남자상(문관)신라8세기 높이 18.5cm 경주
웅강동 출토



사진69 말토우,신라7-8세기
국립경주박물관소장

통일 신라시대 토가- 토우의 간결화와 곱호의 등장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 중국식 도용의 영향이 농후해지면서 통일 신라 말기의 남녀 인물상 토우(사진70)의 경우 형태가 다소 추상화되었고 팔과 다리를 생략하는 대신 음각선으로 표현되었다. 남자상은 둥글게 상투를 틀고 눈, 코, 입이 뺨 뚫려 있다. 여자상은 맨머리이며 둘 다 눈썹은 선각으로 나타냈다. 하체에 구멍이 뚫려 있고 생식기가 표현되었다. 이렇듯 통일신라 시대의 고분에서도 주로 토용과 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토기 중에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 할 수 있는 굽다리가 낮고 굽구멍이 형식화된 도장무늬토기(인화



사진70 남녀인물상토우 통일신라말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71 집모양 뻬그릇, 신라8세기, 경주 복근동출토,
높이43.4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문토기)인 골호가 등장한다.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신라 토기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이나, 중국 당나라와의 본격적인 교류와 불교 미술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뻬항아리(골호)와 병 종류이다. <사진71>의 집모양뻬그릇(家形藏骨器)은 뻬를 담는 그릇으로 기와집이라는 소재를 삼았다. 이는 죽은 이의 영혼이 기와집에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집모양 뻬그릇은 암,수키와를 가지런히 이은 팔작지붕의 당당한 기와집이다. 바깥 벽체에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찍어서 구성한 육각형, 꽃모양 등 갖가지 무늬들이 새겨져 있으며 나무 한 구루를 얹은 음각선선으로 표현하여 이집에 딸린 정원을 표현한 듯하다. 문짝을 달았던 고리 흔적이 남아있고 이 뻬그릇은 통일신라시대 기와집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신라시대 불교가 정착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화장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화장묘를 많이 쓰게 되면서 뻬를 담는 뻬항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졌다. 항아리모양 외에도 탑모양, 집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졌다. 불교에 뜻에 따라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신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사진72 뻬항아리 신라 8-10세기



사진73 노비상, 중국 하남성 안양시 장성묘
출토 높이 21-24cm 하남성박물관 소장

6장. 상형토기의 정신적 사상

상형토기의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므로 고분의 부장양식이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신앙과 가옥구조 및 형태,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다. 토우를 제외한 대부분 형태들이 중공(中空)으로 비어 있고 주구가 달린 용기적인 형태를 갖춘 경우가 많아 부장용, 의례용등의 사용 목적도 겹쳐 제작되었다. 즉 제사, 장례 등 의식이나 행사시에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데 사용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기원을 표현하는 용도 등의 부장용 명기로 제작된 것이다. 이는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며 안식과 승천 등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과 기원을 나타낸 것으로서 영혼불멸설을 믿었던 그 당시 고대인들의 신앙과 관계가 깊다.



사진74 무사와 말의 군단, 진시황릉 출토, 기원전3세기 중국 임서성 임동현 여산

7장. 상형토기에서 상형청자로의 시대적 흐름과 발생



사진75 조물박모양주전자(飄形注子),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삼국시대 특히 가야와 신라시대 이래로 많은 상형도자들이 만들어져 왔으며, 각 지역과 시대마다 상형의 형태나 표현기법 그리고 용도 및 기능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이 용기적인 면도 갖추고 있으면서 장식을 많이 하여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상형토기가 많이 제작되었던 고신라시대의 상형토기는 중국의 한(漢). 육조(六朝)의 영향을 받았고 낙동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등의 상형토기들과 비교해 볼 때 고신라시대 상형토기는 제기적 성격⁹⁾ 을 띠고 있으며 주로 고분(古墳)에서 출토

되므로 대부분은 부장용 혹은 제사용기였을 것이다. 이렇듯 제사와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부장용 등의 의식용(儀式用)도구로 널리 쓰여지면서 삼국

9) 김원룡, 한국의 고고학 개론, p159

시대 특히 가야와 신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像形土器)가 제작되었다. 동물이나 인간 혹은 차륜(車輪), 집, 배, 등의 형태들로 대표할 수 있고 비록 세련된 기법은 아니지만 그 사실적인 표현은 고대인의 소박한 정서와 종교인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라이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신라 상형토기가 갖고 있던 고분문화적(古墳文化的)인 특징은 달라졌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두 시기의 상형도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토기 조롱박 모양 주전자 형태〈사진75〉는 고려 시대의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사진76〉와 모양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고려 상형청자도 향로 등과 같이 의례용기로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례용, 부장용으로 많이 제작되어온 상형토기와 연관성을 보이지만 상형청자의 기능이 문방구 및 일상용품으로도 제작된 예가 있어 용도상으로는 상형토기와 상형청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듯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와 고려의 상형청자의 용도는 다르지만 고려시대 이전에 흙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상형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고려 상형청자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삼국시대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를 바탕으로 한 고려초기의 상형청자는 12세기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우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형청자로 제작된다. 이러한 상형청자의 조형미는 귀족적인 성격이 짙고 고려시대 상류사회의 생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상형청자의 우월함을 알 수 있는 예로, 고려 仁宗 1년(송나라 휘종: 宣和 5년, 1123년)에 송나라의 사신을 따라 고려의 서울 松都에 머물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徐兢이 다음해에 저술한 견문록인 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실려 있는 기록을 보면 서궁이 고려인들이 사용하던 기명에 관하여,



사진76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고려12세기 국보133호 리움미술관 소장

“질그릇사자향로에서 향이 나오는 것도 역시 비색이다. 위에는 옹크리는 짐승이 있고 밑에는 연꽃이 이를 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서 이 그릇이 가장 정교하고 절묘하다. 그 나머지는 월주요 비색이나 여주 새 가마의 그릇과 대개 비슷하다.”¹⁰⁾

고 말하였다. 이렇듯 청자사자향로(靑磁獅子香爐)〈사진77〉는 “산예출향(狻猊出香)”이라 하여 사자에서 향이 나온다는 의미이며 서궁의 관점에서 상형청자는 송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우수한 수작이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12세기 전반기는 고려(高麗)의 청자가 유약의

10) 진홍섭, 청자와 백자, P39-40



사진77 청자사자향로
(靑磁獅子香爐)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발색(發色)과 태토(胎土)의 정선(精選) 및 번조(燐造) 등 기술에서 고도로 세련되어 이른바 비색순청자(翡色純靑磁)의 전성기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청자는 송인(宋人)들이 일컬었던 소위 천하제일이라는 비색유(翡色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청자사자향로는 바로 이런 시대적 특색을 나타낸 가작으로 사자를 상형해서 앉힌 향로 뚜껑과 3개의 수면족(獸面足)으로 떠받친 화사(火舍)로 이루어져 있다. 향연(香煙)이 사자 몸체의 공동(空洞)을 통하여 사자의 반쯤 벌린 입으로 나오도록 구상되어 있다. 사자가 자리 잡은 위치

가 뚜껑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은 시각적인 변화에서 오는 조형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8장. 상형청자(象形靑磁)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가치관

상형청자는 12세기 고려시대 청자의 전성기에 주로 제작되어 쓰여 졌고 상감청자와 더불어 그 시기 청자 양식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고려인의 상형청자의 솜씨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다운 비색과 어우러져 그들의 미적 정서와 조형의식을 잘 표현했다. 대부분이 숙련된 기술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작품으로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고 불교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귀족사회와 밀착된 일상용기로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복합체인 조형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동식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본떠 묘사하였으며 장식성과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용기의 기능도 겸하였다. 형태는 매우 다양했으며 기형 자체가 물상의 형태로가 표현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형(器形)의 일부에 부속된 부분형상도 있고 여러 형태가 섞여있는 복합형상도 있다. 용도로는 주전자(茶注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향로, 연적, 필가 등의 문방구류와 인장 등으로 제작되었다. 이렇듯 주전자가 상형에 많이 조형된 이유는 상류사회에 대단히 성행했던 차례(茶禮)가 수반되는 각종 의례식, 사신의 영접식, 왕자와 왕비의 책봉식, 공주의 하례식등에서 쓰여 졌으며 서민의 혼례에도 차례(茶禮)가 행하여짐에 따라 차례의식의 우아함과 품위를 강조하기 위해 상형청자의 주전자의 형태를 많이 제작되고 쓰여 졌을 것이고 향로는 불교의식이나 제기용으로 제작되고 쓰여 졌을 것이다. 이렇

듯 상형청자는 단순히 형태를 묘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능성과 장식성이 합쳐진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조형물이다. 이렇듯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형청자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교에 편중해 있었던 고려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예술적 감성과 기술이 담겨져 있다.

9장. 상형청자의 조형적 특성과 재료 문화적 특징

고려시대 상형청자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상용기로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복합체인 조형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리·원앙·공작 등 각종 새, 사자·원숭이·개구리 등 동물, 각종 물고기, 상상의 동물인 용, 봉황, 각종 과실인 복숭아·석류·참외, 나팔꽃, 표주박 등이 고려청자 전성기에 표현되고 예술작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상형청자는 형태 자체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되어 지는 형태가 많으며,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자연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태가 절묘하고, 때론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에 대하여 직접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특징과 개성을 상형청자로부터 느끼게 된다. 12세기 전반기에 비취색의 청자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이와 같이 상서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본뜬 상형청자가 많이 만들어 졌다. 이는 고려인들이 자연의 잠재적인 아름다움을 지각하였으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조형적 표현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형태를 이루는 소재로는 크게 동물, 식물, 인물, 기타의 형태를 취한 상형으로 나누고 참외, 죽순, 표주박, 복숭아, 석류, 연꽃 등의 식물형과 사자, 오리, 원앙, 원숭이, 기린, 거북, 물고기(魚), 토끼 등의 동물형 그리고 동자, 나한, 도사 등의 인물형이 있다. 용도로는 주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향로, 연적, 필가 등의 문방구류와 인장 등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식물과 동물이 복합적으로 혼성된 예술적인 형태가 있어 고려인의 예술적 감성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다. 청자칠보투각향로(靑磁七寶透刻香爐)〈사진78〉인데 머리, 몸, 다리로 구분되어 각각의 동물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는 칠보무늬로 되어있고, 몸은 연잎이 피어나면서 위를 받치고 있다. 다리는 토끼가 온몸을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서 형태의 구성이 완벽하고 자연의 아름다



사진78 청자칠보투각향로(靑磁七寶透刻香爐)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다음과 감동이 있다. 연화(蓮花)는 행복을 불러 오게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써 불교의 상징적인 꽃이며 기풍이 있어 신성시되었다.

1. 식물형

1) 연화형: 연화형의 종류는 주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청자퇴화연화형연적(靑磁堆花蓮花形硯滴)〈사진79〉과 같이 기형의 전체가 하나의 연화 형상을 조형한 형태가 있다. 청자퇴화연화형연적은 연꽃 봉오리를 표현한 몸체에 연줄기를 두 가닥으로 꼬은 듯한 모양의 손잡이와 연잎을 말아서 붙인 모양과 같은 귀때부리가 있다. 손잡이 위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귀때부리와 함께 연적의 기능을 한다. 동체에 붙어 있는 연꽃잎 에는 잎맥이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고 연꽃잎 둘레와 손잡이, 귀때부리에 백퇴화점(白堆花點)이 찍혀 있다. 유약은 약간 산화되어 황록색으로 띠고 있고 빙렬(氷裂)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기형의 전체가 하나의 연화 형상을 조형한 또 다른 형태는 청 연꽃 모양 향로(靑磁陽刻蓮花形香爐)〈사진80〉이다. 개성에서 출토된 이 향로



사진79 청자퇴화연화형연적(靑磁堆花蓮花形硯滴) 고려시대 12세기전반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80 청자연꽃모양향로(靑磁陽刻蓮花形香爐)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는 연꽃 모양 몸체와 복련형(覆蓮形) 연꽃 받침, 그리고 받침대와 몸체 사이를 연결하는 잘룩한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받침대는 연잎이 뒤집힌 모양과 같다. 특히, 받침대와 몸체 사이의 연결 부위는 용머리 모양의 막대 장식이 있는 경우와 넝쿨무늬만 양각된 경우가 있다. 고려의 연꽃 모양 청자 향로는 중국에서 전래된 향로를 모방한 것이며, 특히 여요(汝窯)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작 초기에는 중국 청자의 양식을 따르다가 점차적으로 고려적인 요소로 발전되면서 새로운 특징으로 이어졌다. 〈사진81-1,2〉의 청자화형탁잔은 접시형태의 동체 가장자리의 여섯 곳에 홈을 내어 육엽의 꽃형태를 나타냈으며 비색의 유면을 표현함으로써 식물 의 잎모양 형태는 더욱더 생동감 있다. 〈사진83-1,2〉의 청자화형기대(靑磁花形器台)는 기형의 안쪽면에 작은 원각을 조각하고 그 주변을 돌아가며 여섯 개의 꽃잎을 능화형으로 배치하였는데 측면에도 꽃판을 수직으로 내려 연장시켜

몸통도 능화형(菱花形)을 만들었다. 구연부분이 단을 이루고 있어 기대를 여러 개 포개서 쌓을 수 있도록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사진82-1, 82-2 청자화형잔탁 靑磁花形托 고려12세기전반 高:6.6cm 徑:18.1cm 오사카도양도자 박물관소장



사진83-1 청자화형기대 (靑磁 花形器台) 고려12세기전반 오사카도양도자박물관소장

2) 대나무형태(竹形): 죽형은 상형청자의 표현 대상으로 자주 이용되었고 대나무는 군자(君子)라 전해지고 있으며 평안함을 상징한다. 또한 폭풍우에도 휘이지거나 꺾이지 않으므로 절개를 나타내며 고귀함과 완전한 지조를 상징한다.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靑磁竹筍形注子)〈사진89〉는 죽순모양의 몸통에 대나무가지를 형상화한 손잡이와 죽순모양의 귀때가 붙어 있으며, 뚜껑에도 솟아오르는 듯한 죽순의 형태가 있는 고귀한 형태의 주전자이다. 죽순의 외곽선은 반 양각으로 표현했으며, 잎맥은 가는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조각하였다. 죽순은 성장이 매우 빠르고 왕성한 식물로서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며, 동양화에서는 축복이나 바램의 의미로도 쓰였다. 동체부분이나 귀때와 손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형태를 이룬다. 더욱이 비색(翡色) 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어 12세기 고려 순청자의 최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죽형 상형청자로서 대나무를 모아 만든 형태인 청자양각죽절문병(靑磁陽刻竹節文瓶)〈사진90〉이 있다. 보통 병의 형태에 마치 대나무로 형성하듯 길게 문양을 조각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뻗어 나는 대나무들은 어깨부위를 지나면서 두 줄기가 한 줄기로 모여져 매우 좁고 긴 목이 이루어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긴 목 부분의

세밀함을 동체부분의 선과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구연부분은 나팔모양과 같이 넓게 벌어졌고, 목부분은 길며 몸통 아랫부분은 매우 풍만하게 표현되었다. 목에서 몸통 아랫부분까지 대나무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양각하였고, 대나무 마디들은 두 줄의 음각선으로 표현되었다. 유약은 맑은 연녹색을 띠고 약간의 빙결도 있다. 구연부에서 아랫부분까지 유연하게 내려 온 아름다운 곡선이 부드럽고 유려하며 몸통 아랫부분이 풍만하여 안정감을 준다.



사진84 청자죽순모양주전자(靑磁竹筍形注子)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85 청자양각죽절문병(靑磁陽刻竹節文瓶) 고려12세기 리움미술관소장

3) 석류형 : 석류형 상형청자로서 청자퇴화문석류형주자(靑磁堆花文石榴形注子)〈사진86〉는 석류 세 개를 모아놓은 후 그 위에 또 한 개를 쌓아올린 형태의 주전자이다. 석류에는 씨가 많아 자손의 복을 의미한다. 석류 4개를 2단 구조로 쌓아 올린 형태이며, 앞이 달린 석류 가지를 구부려 붙인 모양으로 손잡이를 형상화하였고 귀때부리는 석류의 꽃을 조형화 한 것이다. 석류들마다 표면에 백토점(白堆點)을 찍어서 벌어져 나온 석류알을 표현했고 위에 올려진 석류의 꼭지를 꽃 모양으로 벌려 입을 만들었으며 아랫단 석류들의 꼭지는 큰 백토성점(白土星點)으로 표현했다.



사진86 청자퇴화문석류형주자 (靑磁堆花文石榴形注子)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4) 참외형 : 참외형의 경우 많은 종류들이 있으며 주전자, 연적, 화병등 사용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청자 참외 모양 병(靑磁 瓜形 瓶)〈사진



사진87 청자 참외 모양 병(靑磁 瓜形 瓶)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87>은 고려 17대 임금인 인종(仁宗, 재위 1122-1146)의 장릉(長陵)에서 '황통 6년'(皇統六年, 1146)의 기록이 있는 인종의 시책(諡冊)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써 참외 형태의 몸체에 치마처럼 주름 잡힌 높은 굽다리가 달려 있으며 입구는 여덟 잎의 꽃 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목 부분에 가로로 세 줄이 음각되어 있을 뿐 다른 장식은 없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송대(宋代)부터 유래하였으나, 중국 것에 비해 훨씬 온아하고 단정한 곡선과 비례를 보여 아름답다. 회청색에 옅은 녹색이 감도는 듯한 반투명의 청자유가 고르게 시유되어 고려 비색(翡色)의 표본을 보인다. 단아한 기형(器形)과 고도로 정선된 유약과 태토가 12세기 고려청자 최고 전성기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5) 표주박형 : 표주박형의 상형청자로서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사진88〉는 형태는 표주박 모양의 연판으로 표면을 장식하고 화맥(花脈)은 오목새김하고, 연판 가장자리는 진사를 칠하였다. 윗 몸체와 아랫 몸체 중간에는 동자가 연봉오리를 두 손으로 껴안아 들고 있는 모습과 연잎을 앞뒤로 장식하였다. 손잡이의 앞쪽 끝부분은 당초형이며, 손잡이 꼭대기에 두 눈이 관통한 개구리형 고리를 얹었다. 주구(注口)는 연잎을 말아 붙인 형상으로 밑바닥에는 하엽(荷葉)형상을 반양각으로 나타냈다. 한 개의 표주박에는 종자의 수가 수백이나 있어 자손이 많음을 의미하고 넝쿨로 되어 있어 자손만대를 의미한다. 표주박으로 표현된 기형은 대부분이 주전자인데 그 이유는 목이 잘록하고 한쪽에는 손잡이, 반대쪽에는 귀때가 붙어서 주전자 용기로서 모양과 기능이 좋기 때문이다.



사진88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 고려 12세기 리움미술관소장

2. 동물형

1) 용과 물고기형 : 동물의 형태를 형상화한 상형청자로서 용의 머리와 물고기

의 몸을 가진 특이한 형태의 동물을 형상화한 청자비룡형주자(靑磁飛龍形注子)〈사진89〉가 있다. 물고기모양은 옛날부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건축물에 많이 장식하였다. 용두어신(龍頭魚身)처럼 보이는 일종의 어양(魚樣)을 상형(象形)한 몸체에 연(蓮)줄기 모양의 손잡이를 단 주전자이다. 꽃대부리는 어두(魚頭)를 형상화했고 꼬리부분은 주전자 뚜껑이며 날개 모양으로 된 2개의 큰 지느러미가 머리 밑에 달려 있다. 이런 어형(魚形)은 고래(古來)로 방화주(防火呪)의 상징인데 건물 용마루 끝에 장식하는 상상적인 치미(치尾)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형청자(象形靑磁) 중에서도 매우 기발한 구상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비취옥(翡翠玉) 빛의 유약과 정치(精緻)한 태토(胎土)가 잘 융합되었다. 지느러미와 꼬리 끝에는 백토(白土)로 된 점과 선을 퇴화(堆花)했으며 이 밖에도 음각선으로 지느러미의 연골(軟骨)을 그리고 양련좌(仰蓮座)의 표현은 양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기이하면서도 각 부위를 갖춘 한 마리의 상상의 동물모습을 하고 있다. 비취빛의 유약색과 더불어 지느러미와 꽃무늬에 나타난 세밀한 음각 표현은 능숙한 솜씨를 보여준다. 이 주전자는 상서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해서 만든 상형청자 중에서도 형태표현에 있어서 용과 물고기의 형태가 합쳐진 독특한 형태이다.



사진89 청자비룡형주자(靑磁飛龍形注子)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2) 거북이: 동물의 형상 중 거북이 형태(龜形)는 장생의 의미를 가지며 거북의 형태를 취한 상형청자는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인지 연적과 주전자의 용도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거북이 몸체에 용의 머리로 조각되어 있으며 등에는 귀갑문(龜甲紋)이 음각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다. 청자구형연적(靑磁龜形硯滴)〈사진90〉은 고려시대 비석의 귀부(龜趺)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머리가 달린 거북을 형상한 연적이다. 이미 삼국시대 신라 토기 주자 가운데 이러한 양식의 유형적인 선례가 있었으며, 고려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으로 세련 발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주구(注口)가 되는 용머리는 입을 벌려 연줄기를 물고 있는데, 그 줄기가 등으로 뻗어 붙어 있다. 거북의 등에 뚫린 물구멍은 둘레가 꽃잎 모양으로 싸여 있고 등 전체에 육각형 귀갑문(龜甲文)이 음각되었으며 귀갑문 안에는 왕(王)자 모양의 무늬가 하나씩 있다. 귀갑 가장자리에는 주름 무늬를 띄엄띄엄 반양각(半陽刻)하였고, 용두의 눈에 철사(鐵砂)

를 찍어 눈동자를 표현하였다. 유약은 밝고 투명하며 빙렬(氷裂)이 없고 태토는 매우 고르다. 평저(平底)로 된 굽에는 규사는 세 개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고, 바닥에는 연잎을 표현한 듯 엽맥이 음각되어 있다. 같은 거북이 형상의 청자귀형수병(靑磁龜形水瓶)〈사진91〉은 연꽃 위에 앉아있는 거북을 형상화한 주자로 얼굴과 목은 청자구형연적(靑磁龜形硯滴)과 같이 고려시대 석비(石碑)의 귀부(龜趺)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용머리로 표현하였다. 수염, 갈기, 이빨, 비늘, 이마의 뿔 등이 모두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물을 따르는 부리, 몸통,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눈은 철사(鐵砂)로 찍었으며, 아래위의 이빨은 정연하게 양각되어 있다. 목과 앞가슴의 비늘은 음각했으며, 발톱은 실감나도록 양각해 놓았다. 등의 귀갑문(龜甲文) 안에는 '왕(王)'자 하나씩을 음각했는데, 이는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북이 앉은 연화좌(蓮華座) 뒤에서 뒷등으로 꼬아 붙인 연줄기는 그대로 손잡이가 되도록 구상하였다. 거북등 중앙에는 연잎을 오므려 붙여서 장식한 조그마한 병 주둥이가 있고, 이 주둥이를 막는 뚜껑으로 반쯤 핀 연꽃 봉오리를 상형하였다.



사진90 청자구형연적(靑磁龜形硯滴)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91 청자구형수병(靑磁龜形水瓶) 고려 12세기 국보96호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 오리형 : 오리형상형청자(象形靑磁)〈사진92〉로서 뛰어나게 정교한 작품의 하나인 청자압형수적(靑磁鴨形水滴)은 물 위에 뜬 오리가 연줄기를 꼬아 입에 물고 있는데, 이 연줄기에 달린 연잎과 봉오리는 오리의 등에 자연스럽게 붙여 조화시켰다. 오리의 등 한복판에 붙어 있는 연잎에는 안으로 뚫린 구멍이 있어 물을 넣도록 되어 있고, 반쯤 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작은 마개를 꽂아서 덮게 되어 있다. 물 따르는 구멍은 오리 주둥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 구멍이 연줄기 끝에 달린 봉오리 끝으로 통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부서져 있어 원형을 확



사진92 청자압형수적(靑磁鴨形水滴) 고려 12세기 국보74호 간송미술관소장

실하게 짐작할 수 없다. 이 연적(硯滴) 전체는 거의 정확한 사실적 기법으로 깃털까지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다. 담록색의 맑은 유약(釉藥)이 전체에 고르게 씌워져 있다. 이 오리의 알맞은 크기, 세련된 조각기법, 적절한 비례 등으로 보아, 고려(高麗) 상류사회의 세련된 문방취미(文房趣味)를 엿볼 수 있다.

4) 원숭이 형: 동물의 모양으로서 원숭이 형상을 본떠서 제작한 형태로서 청자 모자원형연적(靑磁母子猿形硯滴)〈사진93〉은 어미원숭이의 엉거주춤한 자세, 보채는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원숭이 모자(母子)의 사랑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섬세한 감정의 표현과 절묘한 듯 대범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며 고려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익살스러움 엿 볼 수 있다. 12세기 중반 경 순청자(純靑磁)의 전성시기에는 오리·복숭아·거북·동자 등의 소형 연적이 적지 않게 제작되었는데, 이 모자 원숭이 연적도 그러한 연적 중의 하나로 노장사상에 의한 무릉도원의 이상향과 원숭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고려청자연적(高麗靑磁硯滴)중 원숭이모양의 연적은 드물며 더욱이 모자형(母子形)은 유일한 예로서 고려귀족사회(高麗貴族社會)에 애완용으로 수입되었을 원숭이를 그 당시 사기장인(沙器匠人)이 훌륭한 솜씨로 표현한 명품(名品)



사진93 청자모자원형연적(靑磁母子猿形硯滴) 고려시대 간송미술관소장 국보270호

중의 하나이다. 어미의 머리 위에는 직경 1.0cm 정도의 둥근 물들어가는 구멍있고, 새끼의 머리 위에는 직경 0.3cm 크기의 물을 버루에 따라내는 구멍이 각각 뚫려 있는 연적(硯滴)이다. 두 원숭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사이를 파서 두드러지도록 표현하였으며, 어미원숭이의 눈·코와 새끼원숭이의 눈은 철사점(鐵砂點)을 찍어 표현하였다. 유약은 잘 녹아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전면에 있어 은은하며 빙열(氷烈)이 없으며 표면색조는 아름다운 비색(翡色)이다. 밑바닥의 유약은 닦아 냈으며 양 발과 엉덩이 세 곳에 내화토를 받쳐서 소성하였다.

5) 용형: 용머리를 형상화한 청자용두식필가(靑磁 透刻 龍頭式 筆架)(사진94)는 12세기에 제작되어진 다양한 형태의 상형 연적들과 함께 고려 상류사회 문인들의 수준 높은 미적 감각과 화려한 귀족문화의 면모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밖을 향한 용두가 좌우 양쪽에 있으며 용머리는 갈퀴, 수염, 송곳니, 비늘까지 양각 기법으로 정밀하게 묘사하였다. 가슴에는 비닐을 양각하고

양 측면에는 당초무늬를 투각하였다. 연당초, 풍혈족(風穴足)의 장식이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필가의 상면에는 붓을 꽂을 수 있는 세 개의 둥근 구멍을 뚫고 주변을 음각 국화문으로 장식하였다. 용두를 비롯한 목과 가슴은 섬세한 양각선을 써서 입체감과 생동감이 넘치게 하였다. 단순한 직사각형 몸체에 다양한 문양 장식이 한데 어울려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주의를 기울인 이 작품은 뛰어난 조형성과 비색의 유약 등으로 당시의 왕실이나 귀족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94 청자용두식필가(靑磁 透刻 龍頭式 筆架)
고려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6) 기린형: 청자기린유개향로(靑磁麒麟鈕蓋香爐)〈사진95〉는 향을 피우는 부분인 몸체와 상상속의 동물인 기린이 뿔어 앉아있는 모습을 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린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상상의 동물이다. 이 동물은 어진 임금의 날 때 나타난다고 한다. 향로의 뚜껑에 손잡이 구실을 하는 곳에 기린이 조각되어 있고 세련된 조각술로서 보기 드문 수작이다. 기린의 머리에는 뿔이 돌아있으나 부러져 있는 상태이고, 목 뒤의 부분은 곱슬곱슬하게 표현하였다. 눈은 검은색 안료를 사용해 점을 찍었다. 구



사진95 청자기린유개향로
(靑磁麒麟鈕蓋香爐)
고려12세기 국보65호 간송미술관소장

조상 향의 연기는 벌려진 기린의 입을 통하여 뿔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비취색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향로 전체를 품위있게 감싸고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 청자향로 뚜껑에는 주로 사자, 원앙, 오리와 같은 현실 속의 동물과 어룡(魚龍), 구룡(龜龍)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 등장하고 뚜껑에 장식된 조각의 종류는 원앙·오리 등 실제 동물들과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사자·기린·용 등 상상의 동물들로 구분된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금속기로 만든 짐승 모양의 뚜껑 향로는 궁궐의 공식 모임 때 향을 사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향로는 대체로 11세기 중 반경에는 시작되어 13세기 전반 경까지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조각 장식 청자향로의 시작은 중국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고려만의 독특한 세련미와

뛰어난 조형미로 새롭게 발전되었다.



사진96 청자구룡형삼족향로 (靑磁龜龍形三足香爐) 고려12세기 전반 보물1027호 리움미술관소장

7) 거북과 용형: 거북과 용이 합쳐진 상상의 동물이 표현된 청자구룡형삼족향로(靑磁龜龍形三足香爐)〈사진96〉는 입 주위 넓은 테인 전이 달리고 향을 사르는 몸체 위에 구룡(龜龍)이 장식되어 있다. 머리를 쳐들고 앉아 있는 구룡은 거북 모양의 몸에 용의 머리를 지닌 신령스런 동물로 조각이 정교하고 생명력이 넘친다. 얼굴의 갈기와 목의 비늘 등이 가는 음각선으로 자세히 묘사되었으며, 거북등의 무늬 안에 ‘王’

자가 새겨져 있다. 거북이 앉아 있는 형태의 뚜껑은 몸통이 뚫려 있어, 밑작에서 향을 피우면 몸통을 통해 벌린 입으로 향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다. 뚜껑의 아랫부분에는 꽃잎무늬와 번개무늬 띠를 둘렀으며, 사자머리가 조각된 다리가 3개 달렸다. 밑작 테와 몸체에는 돌아가며 구름무늬가 음각 되어 있다. 전면에 맑고 깨끗한 비취색의 광택이 흐르는 데, 구룡 부분은 좀 더 짙푸른 빛깔을 띠고 있다. 인물의 형태를 표현한 고려의 상형청자는 대부분 인물 단독으로서 표현되기 보다는 오리, 병, 선도(仙桃), 연꽃 등을 들고 있는 형태가 많다. 인물은 대부분 단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며 얼굴의 표정, 의복의 주름들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8) 새형(鳥形): 〈사진97〉는 청자상형 원앙뚜껑 향로(靑磁彫刻 鴛鴦蓋香爐)로써 원앙의 형상이 장식된 뚜껑을 가진 향로이다. 12세기 상형청자 향로 중 뚜껑에 짐승의 형상으로 장식한 향로가 여러 점 있다. 이는 1124년 저술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에서 사자모양의 고려청자 향로가 소개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형청자 향로들이 대부분 12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앙모양 장식은 손으로 빚어 소조(塑造)한 뒤 음각선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당시 고려인들의 조



사진97 청자상형 원앙뚜껑 향로(靑磁彫刻 鴛鴦蓋香爐) 고려12세기 전반 높이 23.7cm 오사카도양도자박물관소장

각기술의 상당한 수준을 알 수 있다. 향연(香煙)은 원앙의 몸통을 지나 부리를 통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 사당리(全羅南道 康津郡 沙堂里) 가마터에서 비슷한 파편이 발견됨으로써 이 향로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었다.

3. 인물형



사진98 청자인형주자 (靑磁人形注子)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99 청자철채퇴화점문나한좌상(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



사진100 청자상형 동녀형연적 (靑磁彫刻 童女形水滴) 고려12세기 높이 11.1cm 오사카도양도자박물관소장

청자인형주자 (靑磁人形注子)〈사진98〉는 1971년에 대구시 교외의 한 과수원에서 출토된 것으로, 상형청자(象形靑磁) 가운데서도 유례가 극히 드문 인물형 주자이다. 도사(道士)처럼 보이는 인물이 두 손으로 선도(仙桃)를 받쳐 든 모습이며, 선도의 끝이 귀때부리이고 인물의 머리 위에 물을 넣는 구멍이 있다. 원래는 뚜껑이 있었을 것이며, 인물의 등 뒤에 손잡이를 붙였으며, 그 꼭대기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붙였다. 모자에 새 모양을 만들어 장식했고 모자, 옷깃, 옷고름, 복숭아에 흰색 점을 찍어 장식효과를 냈다. 맑고 광택이 나는 담록의 청자 유약을 전면에 두껍게 발랐다. 태토와 유약의 질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으며 색도 그리 선명하지 않다. 옷과 관모, 선도의 테두리에 부분적으로 백퇴점(白堆點)이 장식되어 있고 옷에 당초의 문양이 음각되어 있다. 또 다른 인물형 상형청자로서 청자철채퇴화점문나한좌상(靑磁鐵彩堆花點文羅漢坐像)〈사진99〉은 1950년대 강화도 국화리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에 여섯 조각으로 부서져 있던 것을 복원시킨 것이다. 바위 모양의 대좌(臺座) 위에 팔짱을 낀 채 작은 책상에 의지하여 오른쪽 무릎을 반쯤 일으켜 세우고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다. 눈은 반쯤 뜨고 있는데, 눈썹과 눈이 수려하고 코는 오뎅하다. 머리와

옷주름 일부, 눈썹, 눈동자, 바위대좌 등에는 철분이 함유된 검은색 안료를 군데군데 칠하였으며, 옷의 주름가에는 철분이 없는 백토를 사용하여 도드라진 점을 찍었다. 이 작품은 사색하듯 숙연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와 책상, 바위대좌의 처리 등에서 고려시대 예술적 작품 중에 하나이다. 청자상형 동녀형 연적(靑磁彫刻 童女形水滴)〈사진100〉은 정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여자 어린아이를 표현한 연적이다. 머리 위에 모자처럼 쓴 연봉형의 머리장식을 수입구(水入口)의 뚜껑이고 손에 쥐고 있는 정병의 주구(注口)를 출수구로 구성한 것이 특이하다. 어린아이의 옷과 정병에는 간략한 화문(花文)과 당초문(唐草文)이 음각되었으며, 여자아이의 눈동자는 철사(鐵砂) 안료로 점을 찍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나타냈다. 어린아이는 예로부터 길상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회화 작품 등에 소재로 쓰여 왔으며, 특히 연꽃과 더불어 등장할 때는 연이어 귀한 자식을 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동녀형연적은 동녀의 머리에 연봉오리를 얹어 마찬가지로 귀한 자식을 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문방구 용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고려인의 예술적, 미적 감성이 보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사진101〉의 청자상형 동자형 연적(靑磁彫刻 童子形水滴)은 청자상형 동녀형 연적과 유사한 크기의 동일양식 연적으로 마치 같은 고려의 장인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눈동자와 머리에 찍은 철채나 음각 등 세부 장식은 매우 정교하고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과 같다. 입수구와 출수구의 구조는 동녀형 연적과 약간 다른데 바닥에 구멍을 뚫어 입수구를 만들고 동자의 손에 안긴 새의 부리를 출수구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굽바닥에 구멍을 뚫고 안으로 관을 연결하여 입수구를 장치한 연적은 간혹 발견할 수 있다. 비색의 유면이 매우 아름답고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며 사색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사진101 청자상형 동자형 연적(靑磁彫刻 童子形水滴) 고려12세
높이11cm 오사카도양도자박물관소장

10장. 중국의 상형청자

중국에서 청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후한 말경인 2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에 유약이 점차 안정되면서 절강성 북부 요지에서 초기 청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



사진102 청자신정호(靑磁神亭壺) 중국
오-서진시대 3세기
오사카도양도자박물관 소장

후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도 절강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청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흔히 누런빛 나는 청자라고 하는 고월자(古越磁)¹¹⁾라 부른다. 항아리 위에 누각(樓閣)을 배합하고, 인물이나 동물을 붙인 신정호(神亭壺)〈사진102〉나 외관이 닭벼슬 모양을 하고 있는 천계호(天鷄壺), 동물기형, 반구호(盤口壺) 등의 독특한 기형이 등장하며, 이시기에 불교미술의 영향으로 연판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후 당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남청북백이라 표현되는 요업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남쪽의 월주요(越州窯)를 중심으로 청

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의 청자는 기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문양이 거의 없는 단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오대와 송대를 거치며 청자는 크게 발달한다. 송대의 대표적인 청자가마는 섬서성의 요주요¹²⁾이다. 처음에는 월주요의 영향을 받았지만, 곧 예리한 양각문양과 독특한 색상을 드러내게 여요와 관요에서도 청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남송관요청자는 흑색의 태토에 두꺼운 유층을 가지는 독특한 청자가 만들어졌으며, 유약은 더욱 발달하여 가요에서는 빙열문 자기를 생산했다고 알려진다. 또한 하북성 균요에서는 유약에 소량의 동을 혼합하고 동의 산화물을 착색제로 하여 소성하는 동홍유를 사용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어 원대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0세기 오대와 송대의 청자는 고려에 전해져 고려청자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다. 해무리굽이나, 굽 안쪽까지 유약을 바르는 형식 등이 월주요와 고려청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청자의 전파를 뒷받침해 준다. 12세기에 이르러서 한국의 청자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독특한 비색을 띠게 되며, 고려의 독자적인 상감기법의 발달과 세련된 상형청자는 비색과 예술적인 형태에 있어서 고려청자만의 독보적인 특색을 가지게 되고 중국청자와 확연히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송나라 사신 서긍 고려의 비색 상형청자에 감동한 이유는 중국에서 보아온 상형청자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청자로 모양을 만든 상형청자는 투박하고 웅장한 청동기를 대신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인들은 고대 황제들의 전설을 간직한 청동기의 모조품을 청자로 만들어 귀족들의

11) 중국9~10세기 월주가마의 정통 청자와 구별해 누런빛 나는 청자를 고월자(古越磁)라 한다.

12) 중국 송대(960~1279)의 저명한 청자요지(靑磁窯地)이며 산시 성[陝西省] 통촨 시[銅川市]에 있다. 짙은무늬·새김무늬 기법과 무늬를 그리는 기법이 정밀하고 형태가 단정하며 종류가 다양하다. 송대 육유(陸游)의 〈노학암필기 老學庵筆記〉, 주휘(周輝)의 〈청파잡지 淸派雜誌〉, 왕존(王存)의 〈원풍구역지 元豐九域志〉 등에 요주요가 언급되어 있다.



사진103 청자표형주자(靑磁瓢形注子)중국(中國)-원(元)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104 사자 모양 손잡이 뚜껑 향로(靑磁獅子蓋鼎形香爐) 중국-원(元)국립중앙박물관소장

서재에 하나씩 두었다고 한다. 이렇듯 고려의 상형청자중국의 상형청자와 달리 매우 섬세하고 세련되었다. 이는 우수한 중국의 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세련된 상형청자의 표현 감각에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 103>의 중국 원시대의 청자표형주자(靑磁瓢形注子)의 경우 고려의 청자표형주자(靑磁瓢形注子)와 비교한다면 표현 감각이나 예술성에 있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진104>사자 모양 손잡이 뚜껑 향로(靑磁獅子蓋鼎形香爐)는 중국(中國)-원(元)의 유물로서 누워 있는 사자 모습의 손잡이가 딸린 뚜껑이 있는 향로이다. 입은 짧은 목에서 한번 꺾여 곧게 선 쟁반모양(盤口形)이며, 복부는 볼록하다. 목과 복부가 만나는 지점에 두 개의 사각형 귀가 붙어있다. 몸체의 내저(內底)는 구멍을 막는 원판이 없이 뚫린 상태이다. 동물 발 형태의 다리는 안쪽을 파내었다. 전체에 기포가 많고, 유면이 매끄럽지 않으며, 녹청색의 유약이 입혀져 있는 용천요(龍泉窯)에서 제작된 청자향로이다. 이 향로<사진104> 역시 고려 상형청자 향로들에 비하면 중국청자 답지 않은 다소 조악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중국(中國)-원(元)나라 유물로서 청자 참외 모양 작은 주전자(靑磁瓜形小注子)<사진105>는 아래위가 납작하고 옆이 통통한 참외모양 주자인데, 몸통은 아래위를 따로 만들어 붙인 접합 흔적이 있으며 손잡이와 주둥이도 따로 만들어 붙였는데 이 상형청자 역시 형태나 유면의 색등을 볼 때 고려의 참외모양청자의 아름다움을 넘어 설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청자 인물상에 있어서는 표현기법이 다른 형상에 비해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해졌다. 청자 남자 입상(靑磁娘子立像)<사진106>경우 신안선¹³⁾에서 발견된 것으

13) 신안선은 1323년 중국 경원(지금의 Ningbo) 항구에서 도자기 등 무역품을 싣고 일본의 하카다와 교토로 향하던 국제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뜻하지 않게 침몰하였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무역선이 1975년 한 어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사진105 청자 참외 모양 작은 주전자 (青磁瓜形小注子) 중국 원(元)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사진106 청자 남자 입상(青磁娘子立像) 중국(中國)-원(元) 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로서 중국 원(元) 용천요 청자이며 14세기 초반에 아름다운 명품 청자의 본고장에서 제작되어진 옥과 같은 청아한 질감의 상형청자이다. 연줄기가 달린 연꽃잎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는 여인상으로 속은 비어 있다. 연꽃잎 위에는 촛대와 같은 긴 대롱이 얹혀 있다. 얼굴과 목, 손 부분은 유를 입히지 않고 표면이 매끄러워 피부와 같은 질감이 나타난다. 바닥은 안굽의 형태로 유약을 입히지 않았으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머리 앞부분에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가는 선을 양각(陽刻)으로 조각하였다. 머리 앞뒤면, 양팔, 몸통의 앞뒤면, 어깨에 얹힌 연꽃 등을 따로 만들어 접합했으며 일부 장식은 따로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각이 예리하고 숨씨가 세련되어 졌다. 녹색이 약간 짙은 듯 하나 맑고 고운 청자 유약이 입혀져 있다. 일본 쇼조코 사(清浄光寺)에 전래되는 문화재 중에 비슷한 모양의 남자 입상이 있는데, 그 용도를 촛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입상의 용도 역시 촛대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세련되어진 중국의 상형청자 인물상으로는 청자반점무늬여인좌상(青磁斑文女人坐像)(사진107)이 있는데 중국 원(元)나라 유물로서 우아한 자태의 부인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왼쪽 손에는 대(竹)로 짠 광주리를 들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여의형(如意形) 물체를 들고 있다. 앉아 있는 의자는 반점무늬가 퍼진 듯 띄엄띄엄 장식되어 있다. 이 좌상은 옷깃이나 머리 모양, 광주리의 결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특히 얼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근엄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중국의 상형청자는 고려의 상형청자에 비해 인물상을 제외하고는 대상에 대한 표현능력이 고려인들 보다 떨어



사진107 청자반점무늬여인좌상(青磁斑文女人坐像) 중국 원(元)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진다고 볼 수 있다.

11장. 맺음말

상형토기.상형청자의 조형적인 미와 정신적 사상

상형토기는 형태상 제기적(祭器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로 고분(古墳)에서 출토되므로 대부분은 부장용 혹은 제사용기였다. 삼국시대 가야와 신라에서 상형토기가 제사와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부장용 등의 의식용(儀式用)도 구로 널리 쓰여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형토기(象形土器)가 제작되었다. 동물이나 인간 혹은 차륜(車輪), 집, 배, 등의 형태들로 대표할 수 있고 비록 세련된 기법은 아니지만 그 사실적인 표현은 고대인의 소박한 정서와 그들의 생활과 내면세계 특히 종교인 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고분의 부장양식이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신앙과 가옥구조 및 형태,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다. 신라이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신라 상형토기가 갖고 있던 고분문화(古墳文化)적인 특징은 달라졌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두 시기의 상형도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기능에 있어서 대분의 고려 상형청자도 향로와 주자 등과 같이 의례용기로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례용, 부장용으로 많이 제작되어온 상형토기와 연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상형청자의 기능이 문방구 및 일상용품으로도 제작된 예가 있어 용도상으로는 상형토기와 상형청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듯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와 고려의 상형청자는 의례용도와 제기용이라는 유사한 용도를 갖고 있고, 흙을 사용하여 입체적인 상형물을 제작한 상형토기가 고려 상형청자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를 바탕으로 한 고려초기의 상형청자는 12세기 고려청자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우수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형청자로 제작된다. 특히 상형청자의 조형미는 귀족적인 성격이 짙고 고려시대 상류사회의 생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형토기와 상형청자는 용기적인 형태를 갖춘 경우가 많아 부장용, 의례용등의 사용 목적도 겹쳐져 제작되었고 제사, 장례 등 의식이나 행사시에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데 사용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기원을 표현하는 용도 등의 부장용 명기로 제작된 것이다. 이는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며 안식과 승천 등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과 기원을 나타낸 것으로서 영혼불멸설을 믿었던 그 당시 고대

인들의 신앙과 관계가 깊다. 토기에서 청자, 분청자, 백자로 이어지는 담는 문화의 변천과 발전 속에 신라, 가야의 상형토기와 고려의 상형청자는 영혼을 담는 부장용기로 혹은 의례용기였고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고대인들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의식과 영혼이 반영된 역사적 산물로 존재했던 것이다.

상형토기, 상형청자의 고유한 조형요소가 현대적 조형요소로의 반영된 사례

고대의 상형도자에서의 대상에 대한 사실적 표현은 주술적, 종교적인 사상이나 이념을 담는다. 현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상징적 효과를 현대적 조형요소로써 작품 속에 반영한다. 대상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나 상징적인 색채 혹은 선은 전통성이나 관습과 같은 속성을 반영하게 되며, 그 상징화된 이미지는 인간에게 근원적인 생각과 이념으로 표출된다. 그러한 원시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작품은 현대인들의 일상을 고대로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한다. 흙의 물성적 재질과 작가가 컨셉(concept)으로써 이용하는 자연물 혹은 어떤 일상적인 대상이 주는 친근함과 익숙함은 특별한 내용이나 의미를 주입하기도 하고 지각과 심리적인 상태를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심미적 역할도 한다. <사진 108>의 박은정의 작품과 아드리안 삭스(Adrian Saxe)의 작품<사진109>은 이와 같은 요소와 감성들 지니고 있으며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이 주로 표현된 티팟(Teapot)으로써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주구(注口)와 손잡이 등의 티팟(Teapot)의 기본적인 형태를 배제하지 않고 작품의 조형성에 도입함으로써 식물의 사실적인 형상들과 함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작품의 예술사적인 면에서의 티팟(Teapot)은 고대 상형



사진 108 박은정 작
화과차호,자기토,캐스팅
29× 15× 24cm











































사진109
아드리안삭스(Adrian Saxe)
Untitled Mystery Ewer, 1997. Porcelain,
12.25 x 8 x 4.25 in

도자에 많이 나타나는 사후의 세계로 영혼의 물을 전달하는 의식적 의미의 고대 주전자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대상에 대한 사실적 표현의 조형적 의지와, 전통적, 종교적인 감성은 새로운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 윤용이, 한국도자사 연구, 문예출판사, 1993
- 정양모, 한국도자사, 문예출판사, 1991
- 윤용이,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돌베개, 2007
- 국립중앙박물관, 신라 토우 영원을 꿈꾸다, 2009
- 이은창, 신라가야토기 요지, 효성여자대학교 박물관, 1982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도록, 2005
- 이난영, 신라의 토우,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1976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고분조사보고서, 암사동, 1994
- 암사동유적발굴조사단, 암사동 유적조사보고, 1983
-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학고재, 1996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고고관, 2005
- 임상택,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2008
- 김영미, 신안선과 도자기 길, 통천문화사, 2005
- 최건 외3인, KOREAN Art Book, 예경, 2000
- 황종구, 황종구 교육 논문집, 이화여대미술대학, 1984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도록, 통천문화사, 2009
- 서궁, 고려도경,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97
- 김원룡, 한국고고학개론, 일지사, 1973
- 진홍섭, 異形土器의 一例, 고고미술 제5권 5호, 1963
- 박용숙, (설화로 체계로 본) 한국미술론, 일지사, 1975
- 김원룡, 신라토기(新羅土器), 열화당, 1981
-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1978
- 강창화,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2006
- 국립경주박물관, 기마인물형토기-신라왕실의 주자, 2007
- 서울대학교박물관, 한국선사문화전, 1986

상형 토기(象形土器).상형청자(象形靑磁) 연표

형태 시대	동물형										식물형					인물형		기타				
	오리/새	닭	말	용	거북	사자	호랑이	원숭이	기린	뽕형	연잎	죽순	참외	표주박	석류	토우/토옹/토면	호/주자/연적	집모양 家形	차형 車形	배모양 舟形	신발모양	
신석기 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